

2022

통권 제32호



세계중의회인식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0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세종시의회 후속 조치 이행 '가속'




76

의원
발언함



56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충청권 지방은 설립 공동추진 협약식

16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 모으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단 전체간담회

일시 : 2021. 12. 14.(화) 16:00 장소 : 베스트웨스턴몰라스 호텔세종

12



32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입법정보 **59**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19



13 3월부터 유방연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운영



입법정보 **59**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80





제73회 임시회 개회사

如
虎
添
翼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희망의 씨앗이 우리 주변 곳곳에 뿌려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하고 방역 지침에 협조해주고 계신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침익如虎添翼’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침익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뜻으로, 흑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하여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 사자성어에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국회 세종시대와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실제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방법으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기존 안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의 제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국회의 변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회 전체 이전안은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됩니다.

국회가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최종 이전 규모를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세종시민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다가서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연내 처리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도 공히 포함된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도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전 의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확정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회 운영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실무준비단 구성에 이어 인사권독립TF를 신설하는 등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에 따른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논의될 세종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 방안과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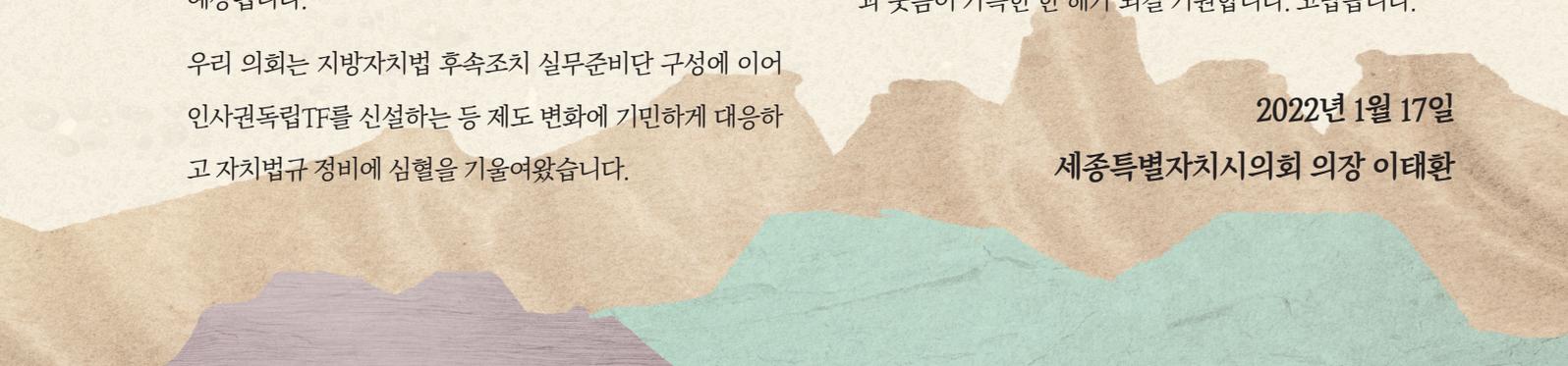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임인년 새해에도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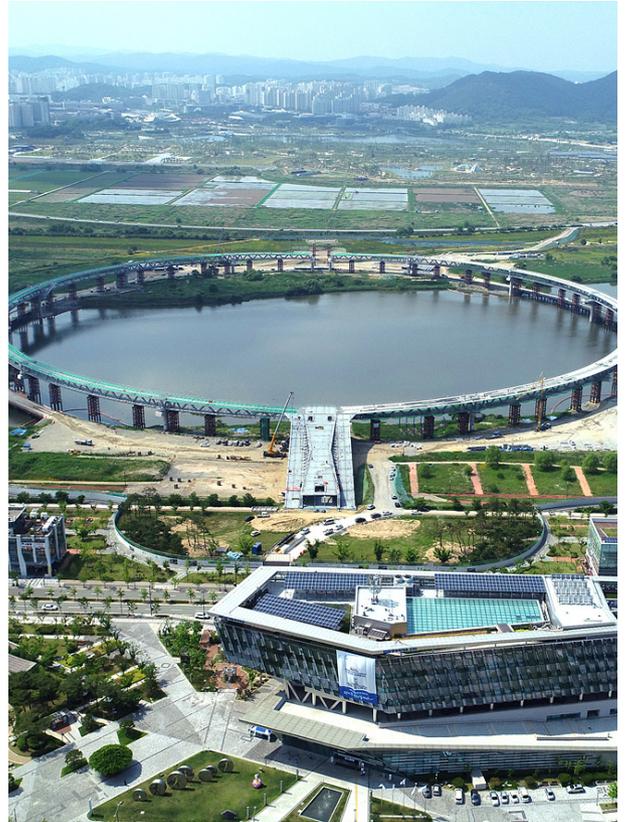
통권
제32호

SEJONG CITY COUNCIL

정읍면
+ 민방위대
세계중의회의안식



- 04 특별기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세종시의회 후속 조치 이행 '가속'
- 06 주민조례 청구, 세종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 08 의정 포커스**
제72회 정례회 및 제73회 임시회 성과
- 12 의정 뉴스**
- 20 5분 자유발언**
- 27 시정질문**
- 28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32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51 주요 안건 처리 현황

56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59 입법정보

- 생활법령 정보
- 주요 입법동향
- 법령 해석 사례
- 최근 시행 법령
-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76 의원 발언함

80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86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87 독자투고

88 의회 운영 홍보채널 소개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변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세종시의회 후속 조치 이행 '가속'



인사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가속을 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인사권 독립 시행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17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시의회 인사 운영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 공무원의 승진·징계 의결과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1월 13일에는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의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원은 77명이다.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한 여정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에 발맞춰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계획대로 이행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의 지난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과 검토가 충분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정책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실무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 인사권독립TF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총 32건(제정 16건, 인용조문 12건, 일부개정 4건)을 정비해 왔다.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 청구 세종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목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 286,517명의 100분의 1인 2,866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 주민 조례 청구 이렇게 하세요!

- 청구인대표자

주민청구 조례안과 함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세종시의회 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인대표자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 서명 요청(6개월 이내)
- 청구인대표자

의회 의장에게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세종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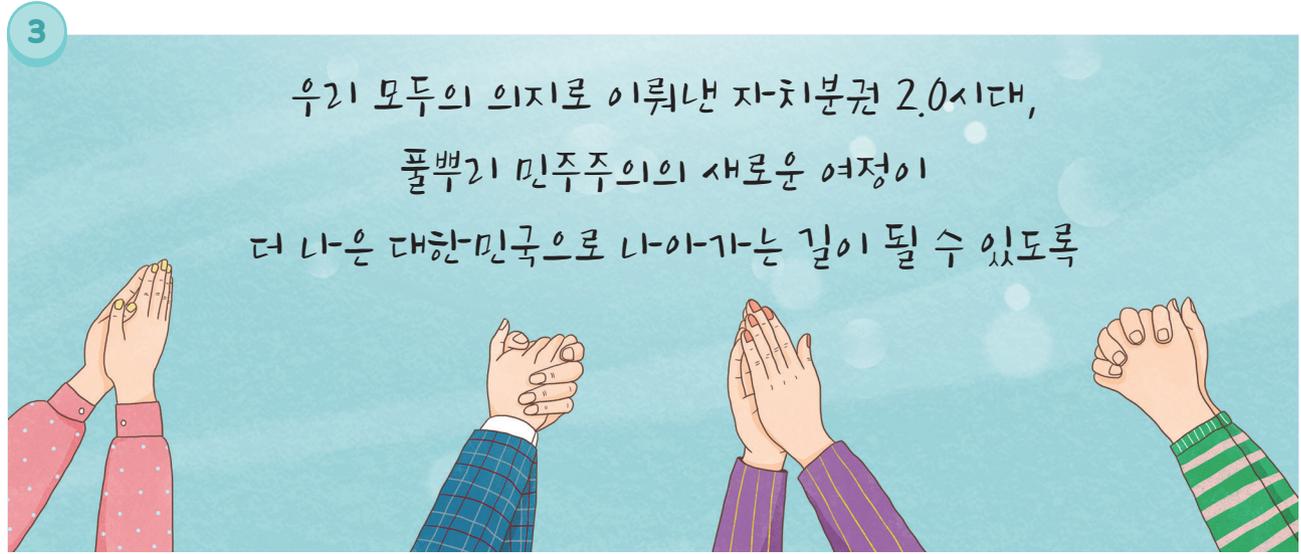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14일 이내), 청구인명부 보정 (보정기간 30일 이내)
- 세종시의회 의장

조례 청구 심의
⇒ 수리 또는 각하
- 수리됐을 경우

의회 안건으로 상정,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청구와 청구인 전자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주민e직접'을 검색



의정포커스1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폐회... 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12월 15일 '2022년 본예산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은 각각 1조 9,213억원과 8,704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각각 1040억원과 496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상병헌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각각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즈음하여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의 노고를 기억하며'와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정책망을 구성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시에 떨쳐낼 수 있는 보건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총 네 차례 본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26일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처리된 안건은 총 87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26건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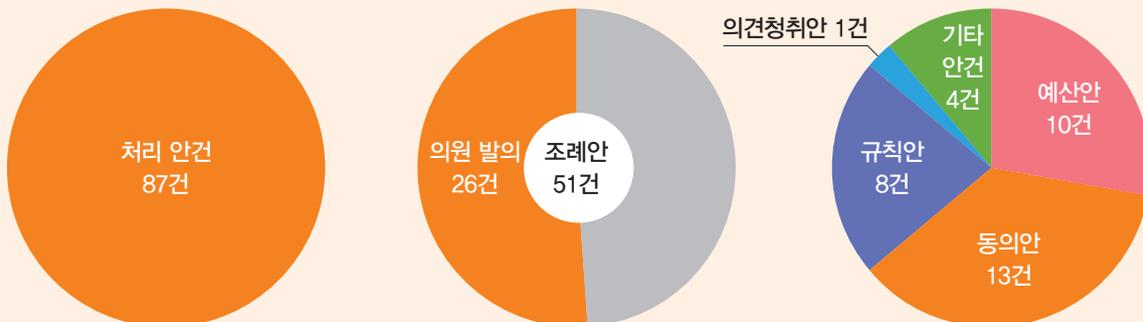


이번 회기 중 최종 의결된 조례가 가져올 변화는?

주요 내용	조례명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제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지원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여성플라자 개관(올해 3월 예정)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추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걷기 사업 참여자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용에 따른 용적을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평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시설에서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긴급 상황 발생 시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황 관리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	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의원 발의 조례 중 선정(조례명 앞에 반복되는 세종시는 생략)

인포그래픽 | 안건 처리 현황



의정포커스2

세종시의회 제73회 임시회 폐회... 30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박성수·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7건이다.

이번 본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27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9건에 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태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시도 매일 7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회기는 제74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4일부터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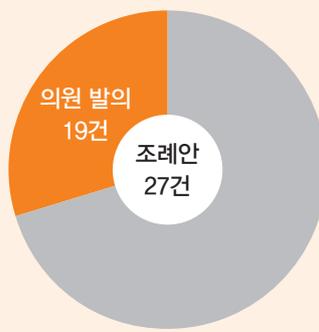


이번 회기 중 최종 의결된 조례가 가져올 변화는?

주요 내용	조례명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	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미디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범위 및 활동 보호 사항, 지원 및 포상 관련 사항을 정함	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나무은행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수목을 기증받아 공원 및 녹지 등 조성 시 활용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청 기간(14일전), 제한 사유, 우선순위를 검토해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시청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 결정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보호수(수령 100년 이상), 노거수(수령 80년 이상)로 지정 가능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양도 가능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비용 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수 100여 이내로 확대하고 시민위원의 경우 공개 모집 실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명예시민증 수여자 및 시민대상 수상자들을 위한 기념 공간 조성 및 시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의원 발의 조례 중 선정(조례명 앞에 반복되는 세종시는 생략)

인포그래픽 | 안건 처리 현황



NEWS

SEJONG CITY COUNCIL

01

세종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의정모니터단 한 해 활동 내용 및 성과 공유 ...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해 활동 상황과 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환 의장은 그간 적극적인 의견 제출 등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제2기 의정모니

터단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의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각디자 인연구소 이용각 대표를 초청해 정책 제안 처리 절차 및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 기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태환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내년에는 의정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확충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년 임기로 2월에 제2기 활동을 종료한 후 제3기 인원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02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모집

2월 3일~28일까지 신청접수 ... 만 16세 이상으로 문턱 낮춰

세종시의회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council.sejong.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

한 후 이메일·우편·팩스로 발송하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정모니터단은 위촉 후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불편 사항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03 세종시의회, 3월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28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본격 운영한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미래 세대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초 '2022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5회) ▲의회 견학(5회) ▲본회의 방청(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5회) 등 총 17차례 운영된다. 또한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선정자에게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와 본회의장 현장 체험 등 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접촉·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선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04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세종에 둥지 틀고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개소식 이후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임시회 열어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1월 18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층에 자리 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2022년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 지원 항목 확대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회에 앞서 서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로 지난해 말 이전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첫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에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1월 19일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현장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Q.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의미는?

A.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향후 의장협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2시간 이내 거리인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광역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활동이

사무실 이전을 기점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거론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해 메가시티 구축과 주요 지방 거점별 광역교통망 확충 등 앞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돼 그간 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5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 모으겠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난 12월 21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에서 “균형발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상공인·상공회의소·기업인연합회 등의 동참 및 관

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난 23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의 부재로 다른 권역과의 지방금융 격차 발생과 지역 서민금융 기능의 위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충청권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치 등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 활성화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 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법제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주관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방향 등 입법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증가 추세와 지난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한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실무 역량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7

세종시의회,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유공 시민 27명과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시상 인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이
궁금하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72회 정례회 폐회 직후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민 27명과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8 세종시의회,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본회의장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수작 6명에게 상장 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2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총 13차례 비대면 및 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했다.

올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 이준서(아름초5) ▲우수상 서지수 (으뜸초6), 김서아(으뜸초6) ▲장려상 정재형(으뜸초6), 왕수빈(나래초6), 김민유(아름초5) 등 총 6명의 학생이 심사위

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웠고 재미도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80p. 소감문 전문 수록





이순열 의원



발언 영상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제 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람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 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평석 의원



발언 영상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제 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부 선진국처럼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찬영 의원



발언 영상

고졸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해야

제 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세종시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자들이 취업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더욱이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 조사 결과 학생 중 82.7%가 '모른다'고 답변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 대안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원



발언 영상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제 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부지 매매와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 사례가 늘고 있어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 그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손실이 지속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채성 의원은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



발언 영상

금석문 조사 통해 세종시 역사 정체성 확립

제 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금석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시와 관련된 사료 확보 방안으로는 ▲금석문 소재 파악을 위한 목록 조사 ▲금석문 원문 해석을 위한 탁본 조사 등 인문학적 연구 및 성과 홍보 ▲세종시립박물관 건립과 연계한 금석문의 수집·보관, 전시 가능한 공간 조성 등이 거론됐다.

서금택 의원은 “2022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역 내 금석문 조사를 통해 부족한 사료 확보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다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윤희 의원



발언 영상

월평균 82시간 초과근무하는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시급

제 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위드 코로나 단계에 연착륙하기 위한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올해 보건소 역학조사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인 데다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다”면서 “보건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 보건 인력의 업무 과중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전달받아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시 대기한 후 역학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업무 체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 수탁기관인 결핵연구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희 의원



발언 영상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 있는 아스콘 업체 감독 강화해야

제 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관내 아스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희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전체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및 검사 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아스콘 공장 업체에 시 발주물량 우선 배정 및 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 상황에 맞는 ‘개별 사업장 단위 분산 지원 방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상병헌 의원



발언 영상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공헌 잊지 않고 적절히 예우해야

제 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상병헌 의원에게 의하면 2012년 8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게 포상으로 격려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기여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숨은 조력자들을 발굴해 공헌도에 맞는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의원



발언 영상

과거 신사 터였던 총령탑 및 인근 배수지 이전 촉구

제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조치원 침산공원에 위치한 총령탑과 배수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현재 총령탑 위치에 대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탑의 입지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협소한 진입로와 주차 공간,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총령탑 뒤편에 있는 대형 원형 물탱크 배수지(총령탑 배수지)의 경우 인근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 안전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의원은 ▲현재 총령탑을 세종시 위상에 맞게 신도시 조성 예정인 구을달역 사공원으로 이전 ▲총령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이전하여 일원화된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



발언 영상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제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상업용지 비율 축소와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방식 및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았다.

해결방안으로 ▲동 지역 상업용지 비율 축소 등 공급 조절을 위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현 의원



발언 영상

세종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석면 제거 추진 시급

제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환경부에서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5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현 의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건축물 석면 해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



발언 영상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교통소음 불편 해소해야

제 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공동주택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부분 제대로 된 방음시설 없이 교통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채성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도로의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저소음 포장과 과속방지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 방지 대책 마련 ▲차량 운행 소음이 크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성수 의원



발언 영상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제 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중촌동)은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수 의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찬영 의원



발언 영상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중 귀화 희망하면 세종시 정착 지원 제안

제 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명을 쓰거나 행적을 지우고 활동해 후손을 찾는 일이 더디게 이뤄진 데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상당수가 선조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해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선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 과정에서 소외됐었다는 지적이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및 한국 문화와 언어,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귀화를 희망하는 후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특성화고를 통한 취업과 진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제 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입지 선정 과정으로 인해 논란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동과 읍면 지역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대표 재위촉 과정에서 시장 추천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한 것은 갈등 증폭의 핵심이며,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용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갈등 현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용희 의원



발언 영상

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과 공공급식센터 계약 변경 재검토해야

제 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과 공공급식센터 최저가 입찰 방식 계약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개발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진다면 이 부지를 활용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지역 소농과 영세농, 여성농 등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급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행복청과 함께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방향의 전환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종용 의원



발언 영상

세종시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협력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2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과 종전선언 최종 합의 촉구 ▲우리 정부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등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장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 지면 사정으로 결의 내용만 수록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 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남북교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탬 것을 결의한다.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후안무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1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한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대사, 세계유산위원(한국위원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지면 사정으로 결의 내용만 수록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해서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 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 자치단체가 역사는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강제 징용 등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2회 정례회 기간

21년도 제3회 추경 및 22년도 본예산 심사

지난 11월 16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 별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노중용 의원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의회 주요 조례와 규칙 등 총 21건의 조례와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동과 전의면 등 세종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의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66억 1,461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조정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추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은 원안이었던 89억 286만원 가운데 민원상담소 건물임대료 4,500만원을 감액한 88억 5,786만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부대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상당수가 2022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년도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원식 위원장



노종용 부위원장



손인수 위원



이윤희 위원



차성호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2회 정례회 기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지난 11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 계약을 제고를 위해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세종시 주요 관광 자원에 관한 화제성 있는 클립 영상 등 테마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서 세종시만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세 위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시민의 특성화된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시화로 광역교통, 도시계획, 주택공급, 기관 이전 등 건립 지원과 관련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을 포함한 분야별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우리 시 청년일자리 및 청년 시책 발굴과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민과 함께 대학일자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관내에 방치된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연내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지난 11월 18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1개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고·청취 1건을 포함한 30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근거나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관

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지난 11월 22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복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억 3,207만 5천원, ‘긴급복지지원’ 4억 1,534만 5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312억 7,996만 6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7억 7,985만 9천원 증가한 1조 455억 4,944만원으로 편성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 소요 예측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변경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은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복위에 제출된 2022년 예산 규모는 9,829억 5,49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9억 3,161만 2천원(12.85% 증가) 증액 편성됐다.

행복위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의 부적정 편성 사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대전세종연구원 운영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지원 등 30개 사업에서 19억



8,037만 1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설치 등 12개 사업에서 3억 2,670만원을 신설했으며, 시정정책 홍보영상 제작과 시민참여 상징물 제작,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25개 사업에서 8억 1,50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2022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위 위원들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2022년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

유철규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2022년 주요 업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면밀한 연구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다이얼 링크 서비스를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부착 가능한 안내 스티커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교류 제한으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실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윤희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방역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건소 인력 충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과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명절 기간 중 긴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도심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먼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새해에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복위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 및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폐기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이영세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산업건설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2회 정례회 기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

지난 11월 18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1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 18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처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2021년 3차 추경 심사...310여억원 증액

지난 11월 22일에 3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0억 1,088만원을 증액한 1조 210억 77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세입 예산은 조치원 서북부 도시

개발사업 토지매각 수입 208억 7,095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위한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소·축소되거나 완료된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정액을 감액했다.

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 규모는 7,525억 2,733만원(일반회계 5,188억 5,643만원, 특별회계 2,336억 7,090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개 사업에서 19억 1,187만원을 감액했으며 32개 사업에서 19억 1,187만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안의 각각 3개 사업에서 9,700만원을 감액 및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 근거 부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경상경비 절감 가능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한 한편, 전시성 사업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파악해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



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서금택 위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현옥 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강보행교 현장점검 실시

3월 개통 예정인 금강보행교의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서금택 의원, 손현옥 의원, 채평석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 부서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강보행교에 설치된 클라이밍 체험시설과 교량 노면 상태, 배수시설 등의 안전 상태와 낙하 분수와 레이저쇼, 조경, 벤치 등 편의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점형블록과 점자 표지판 추가 설치 및 통행로 단차 제거 등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조경수 활착



등 원활한 생육환경 조성 ▲시설 안내판에 외국어 설명 추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량의 특성상 노면이 미끄럽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도등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개통 전까지 금강보행교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고,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과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박물관단지를 잇는 총연장 1,446m, 폭 12~30m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보행을 통한 금강 조망과 복층 원형의 이색적인 외관 등으로 향후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채성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상병현 위원



서금택 위원



손현옥 위원



채평석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교육안전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2회 정례회 기간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지난 11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52억 1,546만 8천원을 증액한 1조 373억 525만 9천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사업 신설 등 수정예산안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자 수입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8억 6,744만 4천원을 적립한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된 2021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승인되었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 인원에 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22억 56만 5천원을 증액한 1,614억 1,130만 5천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안 가결했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어린이체험축제 등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

식을 검토하고, 하천 정비사업 등 공사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 가능한 사업 대상 여부와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 파악하여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되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청취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공익 제보단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소방 긴급출동에 장애가 없



도록 소방 인프라 구축 노력과 시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카카오 토크 구급상담 서비스를 청각장애인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의원은 혁신학교, 세종형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청의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안전보안관을 중심으로 안전 신고 및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운동이 읍면 지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찬영 의원은 현실적인 과제와 목표 방향 등 정책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

할 것을 주문하고, “소방 현장 대응 활동 시 최선의 전략 실행을 위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 안전장비 구비 및 신규 장비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 관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각종 안전 점검 활동에 재난취약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 결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건강 및 안전망 확충 위한 조례 집중 심사

지난 11월 22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학업 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 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 경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전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골든타임 이내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규정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과 식생활 개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안위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안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을 ‘119 취약계층’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 및 구체적 사항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됐다.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력 회복 분야 예산 중점 심의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전년도 대비 496억 4,486만원 증가한 8,704억 4,322만원 규모의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했다.



예비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을 거쳐 과다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의 사업에서 46억 2,403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비 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음악 치유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서 46억 2,403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12월 2일에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7억 4,947만원 증액 편성된 1,769억 4,283만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

국외 온라인 의정연수 진행

지난 12월 3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칼보쉬스쿨(Carl-Bosch Schule) 관계자와 함께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칼보쉬스쿨의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 담당자 배치, 재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및 취업 우선지원 장학제도, 관공서와 기업 등 관계기관들의 지원과 취업 연계 등 직업학교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선진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외국 국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개정조례안 등 의결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안찬영 위원



이순열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2회 정례회 기간

2021년 제3회 추경안 심사

지난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총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양일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돼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어

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 그리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5억원 증가한 3,625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정 예산 대비 79억원 증가한 1,855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11억원 규모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청 및 교육청 2022년 예산안 심사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각각 1,040억원(5.73%) 증가한 총 1조 9,213억원과 496억원(6%) 증가한 8,704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

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서 80억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107개 사업에서 80억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997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원을 감액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6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계획안 504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서금택 위원



이영세 위원



임채성 위원



차성호 위원



채평석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제7차 회의서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지난 11월 11일에 제7차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대학유치특위는 2020년 3월 27일 구성 이후 그해 9월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지난해 4월에는 시에 대학 유치 전략 수립 주문을 통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대학부지 현장 방문, 지난 7월에는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유치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난 9월에 완료한 대학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대선 후보 지역공약에 세종시 대학 유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학유치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고,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활동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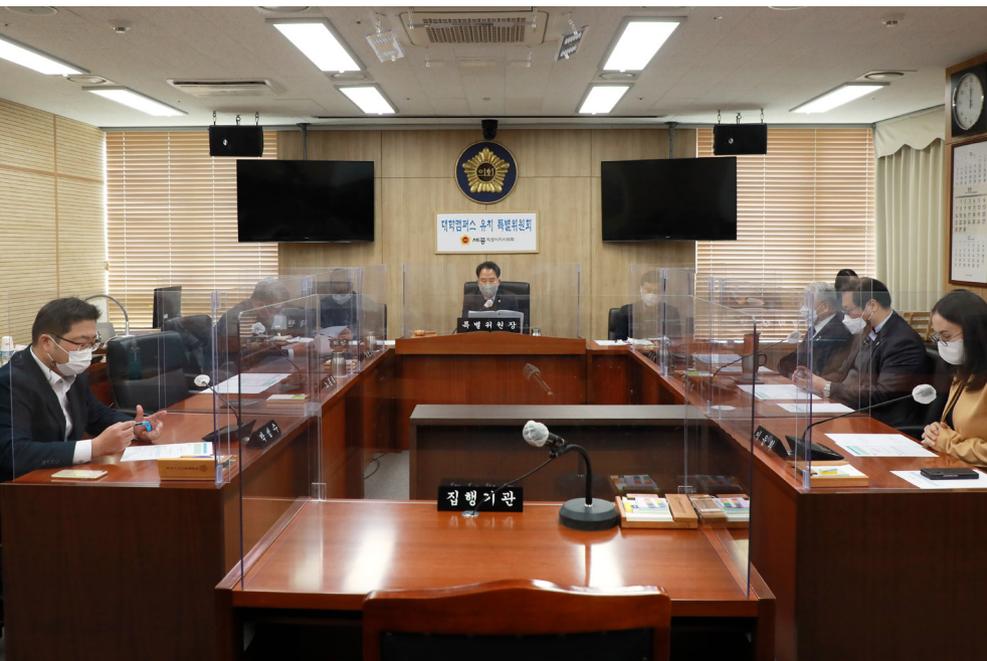
대학유치 위원회 활성화 노력 주문

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을 보고 받았다.

대학유치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대학유치 활동을 위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등을 주문했다.

이어 시 집행부는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본부 설치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바이오테크(Bio-Tech) 혁신 타운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대학유치와 관련된 대선 공약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대학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유치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차성호,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박성수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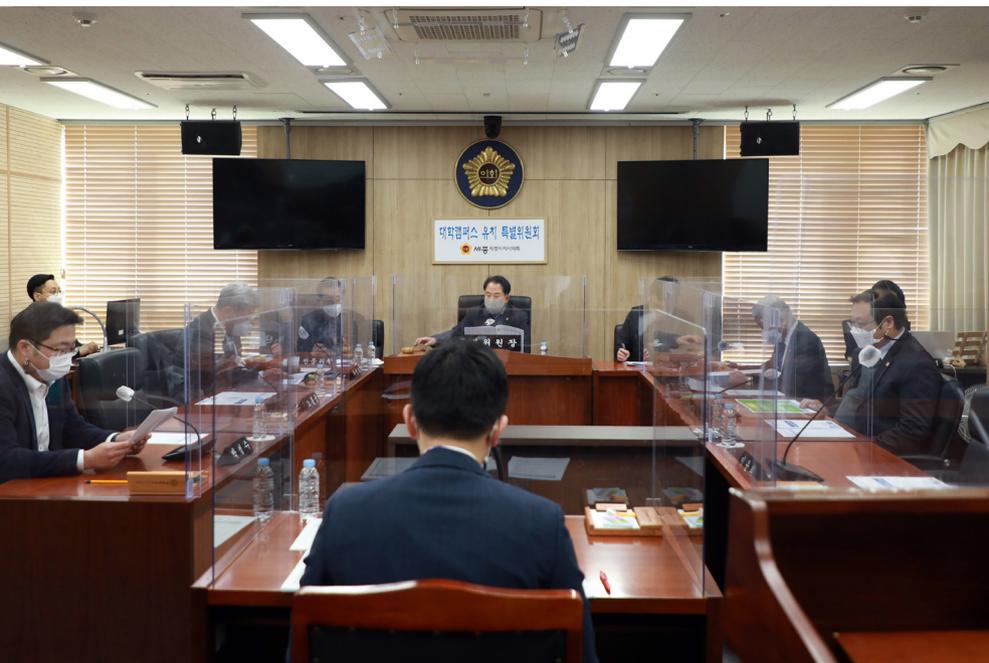
서금택 위원



안찬영 위원



이윤희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합동점검 조치 결과와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등 논의

지난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센터 개청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검과 반곡동 복검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공특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행복청 및 시공사 등과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동일한 하자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으며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상병현 위원



손인수 위원



이순열 위원



차성호 위원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72회 정례회 ~ 제73회 임시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1.17.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1.17~1.27.(11일간)
제2항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임채성, 차성호의원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제6항	휴회의 건 (2022. 1. 18. ~ 1. 26. 9일간)	원안가결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1.27.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회운영위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정 복지위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원안가결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산업 건설위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업 건설위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육 안전위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조례안	수정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수정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11.11.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11.11.~12.15. (35일간)
제2항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이영세, 이윤희 의원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11.26.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회 운영위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가결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회 운영위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원안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원안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행정 복지위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 복지위	제33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4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4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업 건설위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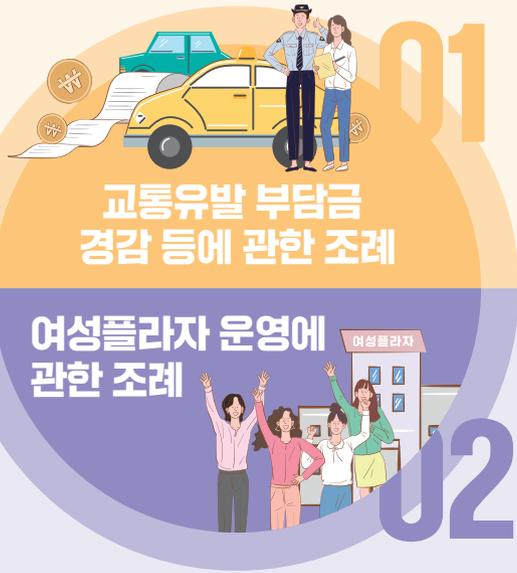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업 건설위	제62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7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찬성의견
	제68항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교육 안전위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예산 결산 특위	제7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7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제77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78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제79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80항	휴회의 건 (11.27.~.12.14.)	원안가결

제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12.15.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찬성의견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수정가결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노종용 의원, 박용희 의원) 진행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언제부터?

왜 필요하지?

뭐가 바뀌는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언제부터?

왜 필요하지?

뭐가 바뀌는데?

- 1 시설물의 규모별 m²당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등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 2 시설물 소유자가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및 이행실태보고서 제출(이행 여부 확인 후 부담금 경감) 등

- 부과대상 시설 (연면적 기준)**
- 1 2022년 3만m² 이상
 - 2 2023년 1만m² 이상
 - 3 2025년 이후 1천m² 이상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체증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2021.11.1. 상병헌 의원 외 7명 발의
2021.11.18.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원안 가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교통개선 사업 투자 재원 확보 및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 유도

근거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과대상 지역인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 74개 도시 중 53개 지자체에서 부과 중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 1 새롬종합복지센터(4층)에 세종여성플라자 개관 (*22.3월 예정)
- 2 여성 능력 개발, 취·창업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 3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등

세종시 여성 인구 추이
2012년 7월 5만명
2021년 8월 18만 3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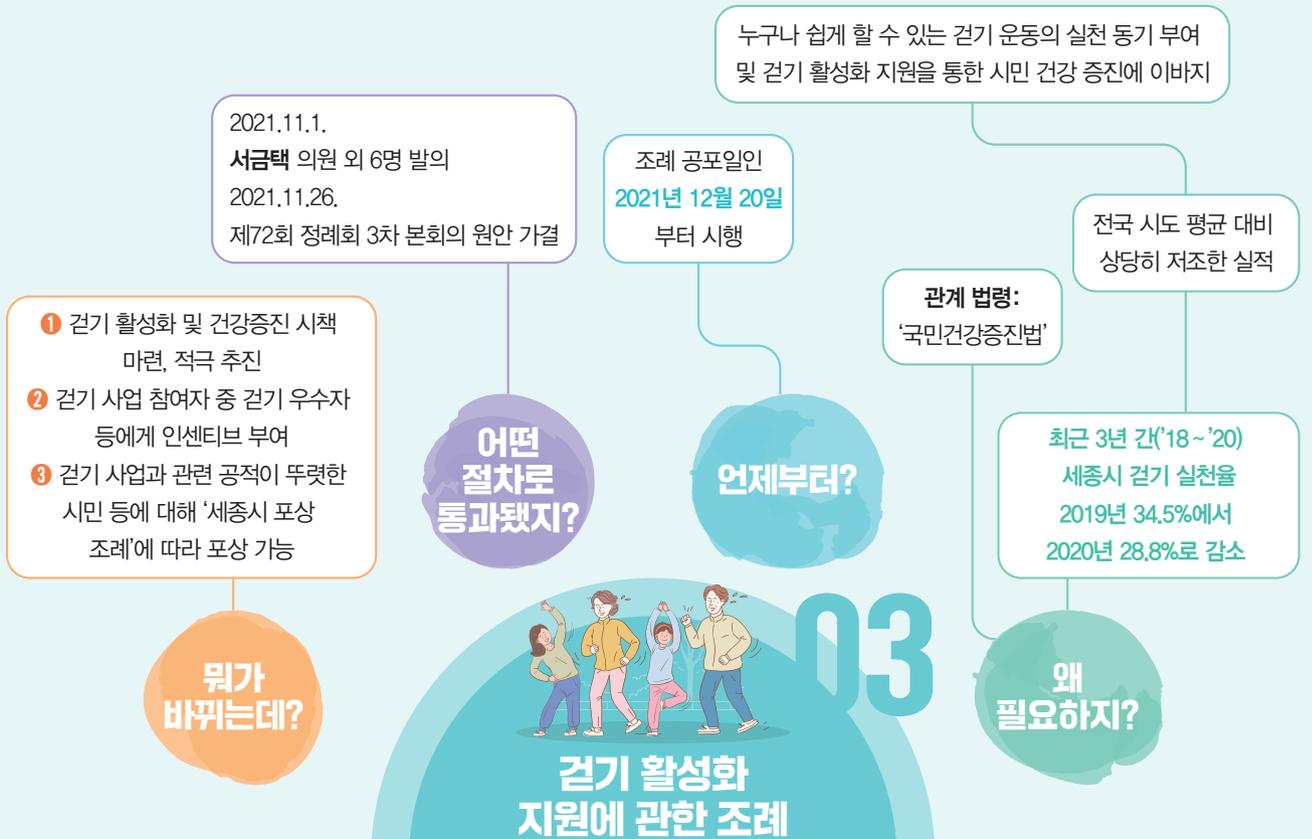
2021.11.1. 이영세 의원 외 9명 발의
2021.11.26.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원안 가결

조례 공포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 확산





입법정보

- 60 생활법령 정보
- 62 주요 입법동향
- 70 법령 해석 사례
- 72 최근 시행 법령
- 74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생활
법령

솔로몬의 선택
출처: 법제처(생활법령정보)

배우자 폭력 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01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취업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부부싸움 후 영희는 철수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 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1 철수

제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영희를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영희는 새벽에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런 점에서 영희가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2 영희

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후 바빠져 늦거나 외박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판결 | 정답은 ②번, 영희입니다.

위 사례는「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
는지 아닌지가 문제 됩니다. 이는 소위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나
파탄주의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
의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혼인 관계에 실질적인 파탄이 났다면 어느 쪽에서 청
구하든 이혼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원·피고의 혼인 관
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규
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
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
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
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
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기타 혼
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부의 혼인 관계
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
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
고·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
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
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평결일: 2021년 11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
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02

김주민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되었습니다. 김주민씨는 요즘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부터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민씨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까지 태양반사광이 심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빌딩 표면의 자재와 전체적으로 타원형인 외관이 문제였습니다. 빌딩 외벽의 유리 표면은 거울과 같이 반사율이 높고, 빌딩 외관이 완만한 곡선이라 태양반사광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일부 세대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다 보니 김주민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민 A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못 한다고 할 정도인지 불분명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않을 거 같아요. 단체로 햇빛을 잘 가려주는 커튼을 공동구매 하는 건 어떨까요?

주민 B

신축된 빌딩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주민들도 있으니 우리가 참을 한도를 넘은 거 같아요. 그러니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예요.

| 평결 | 정답은 2번, 주민B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주는 건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함)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 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에서는 가해 건물의 외벽에 사용한 유리의 반사율이 매우 높고, 가해 건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빛 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각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하고, 총 발생 시간은 연간 1시간 21분에서 73시간이며, 하지를 기준으로 그 지속시간은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이고, 위 현상이 지속되는 중간 시간대의 빛 반사 밝기는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기준 25,000cd/m²의 2,800배에 이르러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가해 건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김주민씨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결일: 2022년 1월 1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입법동향

▶ 최근 공포법령

0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02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 2022. 1. 4.]

[법률 제18685호, 2023. 1. 5., 제정]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창업·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0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 2022. 1. 11.]

[법률 제18754호, 2022. 7. 12.,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 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04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공포 2022. 1. 11.]

[법률 제18749호, 2022. 4. 12., 일부개정]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들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05 — 독서문화진흥법

[공포 2022. 1. 18.]

[법률 제18764호, 2022. 7. 19., 일부개정]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해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06 — 지역문화진흥법

[공포 2022. 1. 18.]

[법률 제18780호, 2022. 7. 19.,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어서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01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 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0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0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 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04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5호의2)

05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동법의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0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현행법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에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최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함.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의 우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험 가입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조의7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02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5조).

0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를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등).

0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0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각각 신설).

주요
입법동향

▶ 최근 입법예고 주요법령



01 — 상가건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3. ~ 2022. 2. 14.)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4. ~ 2022. 2. 14.)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폐지 시 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며, 그 밖에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0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14. ~ 2022. 2. 25.)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 장치인 '고전원전기 장치'의 무상 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04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21. ~ 2022. 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의료지원 범위가 약제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지급 신청 서식을 정하고자 함.

0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27. ~ 2022. 3. 8.)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제조·조리의 과정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2. 1. 27. ~ 2022. 3. 8.)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등 신고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1
법령
해석
사례

질의 (법제처-21-0680 / 회신일자 2022. 1. 19.)

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하수급인(각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함)으로 명시하여 사업주나 하수급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각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금액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 (법제처-21-0835 / 회신일자 2022. 1. 19.)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시행 법령

01_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청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02_고용보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03_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04_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형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05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7.] [총리령 제1781호, 2022. 1. 17., 일부개정]

마약류취급자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하도록 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시 일률적으로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미한 보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허가나 승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류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에 품목코드란 작성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_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중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01_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 6.]

제안이유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제5조)
다. 예산 지원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02_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시행 2022. 1. 7.]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몰래카메라 등)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근절과 이용객의 안심사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함(제4조)
나. 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 할 수 있음(제5조)
다. 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음(제6조)
라. 점검 장비 교육의 실시 및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함(제7조부터 제8조까지)

03_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제안이유 오산 시민과 학생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다. 오산메이커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음(제6조)



04_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는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 급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현장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임,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제3조)
나.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05_ 고령군 녹색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제안이유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령군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4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군수는 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판매지원을 할 수 있음(제10조)

06_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시행 2022. 1. 25.]

제안이유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나.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이행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7조)
라.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8조)



제72회 정례회와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도별 개발 행위 허가 현황에 대해(22.01.20.)

담당자, 담당 계장이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거기에, 민원을 대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 시가 이런 인허가에 대해서 서비스가 좋고 빨리 해 준다 할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의 개발 행위는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업자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데가 세종시라고. (중략)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허가과를 별도로 만들든지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도시성장)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노종용 부의장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세종시 관광 활성화에 대해(22.01.21.)

우리가 세종시에서 사실은 관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게 없지요. (중략) 올해도 수목원, 보행교, 도시상징광장도 그렇고 여러 테마를 잘해서, 또 읍면 지역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프라들을 잘 껴서 그걸 하나의 코스로서 대접할 수 있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여러 코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무슨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실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제7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2년 교육청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21.11.29.)

전에 한번 제가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내의 광고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책버스 같은 거를 차라리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아예 노선 하나에 차량을 래핑(wrapping)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버스는 교육과 관련돼서 모든 홍보가 다 노출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외국을 예를 보면 시책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는 버스도 다니고요. 거기에 특징 지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게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런 식으로 연동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박용희 의원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설제 관련 예산에 대해 (21.12.09.)

교량이 많은데 이것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살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뿌리고 나서 그 부작용을 막으려면 교량 중심으로 살수를 하면 부식을 막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서 그런 말씀이에요.



상병헌 의원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가 공실률 문제에 대해 (22.01.20.)

제가 지난 17일 개최할 때 5분 발언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자료 찾고 확인하다 보니까 크게 2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가 입지 비율을 줄이는 방법. 그런데 그게 1생에서 4생까지는 이미 결정이 돼서 실행이 끝난 것이고 다만 기대를 했던 5·6생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조정에 그쳤거든요. 이것도 여지가 있다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상가 공실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1생에서 4생인데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업종이 특정돼 있거든요. 이 특정된 업종을 서너 개 업종이 가능하도록 풀어주기만 해도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서금택 의원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 (21.12.09.)

도로를 개설했는데 토지 보상가를 안 주고 개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중략) 그걸 찾아서 빨리 등기를 내야 해요. (중략)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자손이 등기 상속을 받아 가지고 '내 땅이 있는데 왜 보상 안 주고 썼냐.' 지금까지 사용료 플러스 토지 보상에 달라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용지 보상도 중요해요. 이것도 (미지급 용지 보상) 해 줘야 하지만 기이 보상되고 등기 안 받은 미등기된 토지를 빨리 발굴해서 해야 한다.



손인수 의원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경제포럼 운영에 대해 (21.12.08.)

경제포럼 운영하시는데 제가 언뜻 다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종시 청년기업인들이 있어요. 청년 기업인들도 이 경제포럼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중략) 사실 청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선배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 공유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PM 및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해(22.01.20.)

PM이나 전기자전거라든지 그 요금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까 타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여건이 타 지자체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제7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22.01.18.)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해서 지역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명, 1명 학생들이 1명의 성인으로 자라고 또 정착을 하는 과정, 개발을 통한 정착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공교육의 과정과 대학교육과정, 취업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게 된 대학들 그리고 대학들의 성격, 학과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행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맞춰나가야 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동시설 예약 시스템에 대해(22.01.19.)

예를 들면 운동시설 예약시스템이 보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예약이 있고 예를 든다면 똑같은 축구장인데도 그것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또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복컴 내에 있는 거 하고 별도로 체육관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좀 다르고 이런 예약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르게 된 것들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일치가 안 돼요.



이윤희 부의장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22.01.20.)

실제 우리 시 보면 이-통장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거기 안에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 그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내용이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건강이 안 좋은 분도 물론 다 찾아낼 수 있고 치매에 관련된,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조금만 더 홍보가 되면 시에서 충분히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한번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열 의원

제7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학교 환경교육 연수에 대해(21.11.30.)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환경교육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태환경 시찰하러 차량을 타고 먼 곳으로 가서 그곳의 자연생태를 보고 오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의 생존권들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앞에 모이고 있거든요. 학교 관리자와 교원들이 예전에 선진지 답사처럼 차량을 타고 어딘가에 가서 다녀오는 건 너무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홍보 용품으로 제작하신다는 것도 고민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영세 의원

제7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해(21.11.29.)

아무리 그 기관이 어떤 연구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말거든요. 저는 이 분야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연구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아직은 축적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세종연구실이나 그쪽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구 인력을 축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책임이고 몫이기도 합니다.

**이재현** 의원

제7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강화에 대해(21.11.17.)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것이 있어요.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자유발언 한 것도 보면 추진 상황을 그냥 무조건 완료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해서서 (중략) '이건 아닌데.' 싶으면 다시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관리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그것 좀 관리를 잘하시고 추진 상황이 그때그때 체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장

제72회 정례회 개회사(21.11.11.)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요건을 갖춰 나가는 동시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헌법 개정과 법률 규정 등의 방식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즉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그동안 영끌어 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을 것이며 행정수도 출범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 또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채평석** 의원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21.12.02.)

세종시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공장이 9개 있는데 6개가 부강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레미콘 공장들 앞에 아스콘이라도 덧씌워서 다니면, 대형 차량들이 다녀도 먼지가 덜 나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먼지를 대형차들이 많이 물고 다녀요. 레미콘 공장 그런 데를 계도를 해서, 입구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라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계속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22.01.19.)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말씀 나눠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한 2~3개월 동안은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됐었다, 소비를 하니까.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화폐로 인해서 캐시백이 또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많이 충전하고 지역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대형할인마트나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사용 못 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에 놓여 있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목소리 좀 같이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성호** 의원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해(22.01.21.)

시에서도, 물론 경제적, 금전적 지원에 관한 것도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예술인분들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인프라 구축 또는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예술을 발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을 보는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략) 예술인들은 예술인들대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한 해 또 시민들께서는 그걸 보고 힐링하고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개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세종시 의원님과의 만남으로 느낀 점과 배운 점

이준서(아름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에서 상병헌 의원님과 만나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의회가 무엇인지, 의원님이 무엇을 하는지, 의회는 우리 세종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인터넷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퀴즈를 해 보니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던 것도 쉽게 정리되고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며 느꼈던 점과 배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로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글을 읽고 제가 체험한 일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반의 친구들이 '2분 자유발언', '의원님께 궁금한 점 발표'와 같은 활동에 용기 있게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았으면 못할 것을 친구들은 자신 있게 나가서 당당한 얼굴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기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기록하고 적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회의한 것을 기록하고 메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기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이 기록물들을 읽어 보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의 점검 그리고 잘 안됐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기록물을 이용하여 제 단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필요한 것?'이라고 물음표를 찍을 것입니다. 이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게임기, 만화책, 핸드폰과 같은 것이 아닌 모든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차역, 필요한 정보를 책으로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형태입니다. 의원님이 말하신 아름2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은 아름중에 입학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름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입학해야 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어린 나이에도 귀가 작아도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기에 우리와 같지 않아도 똑같은 생명이기에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너까지만 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라는 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미있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하며 겪은 일을 글로 적고 생각해 보니 재미라는 진흥에 감싸져 있어 몰랐던 황금, 배워보고 해봐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아서 기쁘기 보다는 묘한 감정이 들고 나중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한다면 저는 재미로만 판별하지 않고 그 진가를 이용하여 판별할 것입니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뜻깊은 시간이었던 모의의회

서지수(으뜸초등학교)

처음 모의의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의원님들도 몇몇 참석한다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더 커졌다. 대본을 다 짜고 읽기만 하는 거라지만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모의의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역할을 정했다. 나는 의장을 하고 싶었지만 의장은 다른 친구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2분 자유발언 의원을 하기로 했다. 아직도 의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아있다.

나는 의회 진행이 앞 순서인 2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때 왜 그 역할을 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역할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역할을 다 정하고 선생님께서는 다음 날까지 발언문을 작성해 오라고 하셨다. 그날 하룻길은 발언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집에 찾아가 시청, 교육청, 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발언문을 작성하였다. 여러 번 고치고 검색해 보았다. 이를 찾으며 의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세종시의 정책이나 사업들도 궁금했고 알게 되었다. 나는 이 과정을 거치며 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발언문도 만족스러워 얼른 친구들에게 발언하고 싶었다. 모의의회에 대한 생각은 시나브로 설렘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의의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긴장이 되어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지난주 리허설 때도 잘 마쳤건만, 그때 리허설을 통해 모의의회가 찾아 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는 것과 그 교실에서 퀴즈도 내는데 그것을 맞으면 상품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론 긴장되면서 퀴즈를 맞혀 상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자리를 재정비하고 의회교실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 한 분의 축사, 그리고 의회 소개 영상을 보았다. 영상이 끝나고 퀴즈를 풀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 그렇게 들뜬 것도 잠시, 표정을 관리했다. 뭔가 조용히 해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반이 2주에 걸쳐 준비한 모의의회를 시작했다. 선서와 의사 보고가 끝나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내가 열을 다해 쓴 발언문을 읽어나갔다. 아침 시간에 발언문을 읽는데 1분 내외가 걸린다는 걸 알게 됐지만 무척 긴장되어 빠르게 읽고 앉았다.

이때 조금만 더 크고, 천천히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웠다. 그리고 모의의회가 계속되었고 표절도 마쳐 끝이 났다. 모의의회가 끝나고 의장이 소감을 말하고 끝났다. 모의의회가 끝이 나자 뭔가 신나고 후련하면서도 허무함이 느껴졌다. 비록 모의의회였지만 나는 모의의회를 할 때보다 모의의회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시에 대해 가깝지만 왜인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지만 모의의회를 준비하며 시의회와 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모의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다.

※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원문의 느낌과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문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처음이자 마지막일 모의의회♡

김서아(으뜸초등학교)

이렇게 큰 회의는 정말 처음 한다. 또한 나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장이었다. 정말 너무나도 떨렸다. 줌에 입장하고 화면에 우리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쿵쿵 뛰고, 갑자기 머리가 핑~ 해졌다. 물론 친구들도 긴장을 했는지 수업 시간과는 180° 달랐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색다르게 보였다.

자신의 글을 고치거나 연설을 연습하는 친구, 멍 때리고 있는 친구, 바짝 긴장한 친구, 너무나도 달랐다. 신기할 정도였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니... 놀라웠다.

드디어! 사회자인 내가 말할 차례였다. 마지막엔 의사봉까지 쳤다. 의사봉을 친 느낌은 웅장하면서도 소리가 맑고 경쾌했다. 며칠 전 리허설 할 때 모든 친구들이 의사봉을 부러워했다. 근데 그걸 내가 치다니 기분이 좋았다.

한편으론 내가 말실수를 할까 봐 걱정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난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찬반 투표를 할 때야 긴장이 정말 조금 풀렸다. 사실 나도 투표를 하고 싶긴 했다. 마음속으론 이미 나도 투표를 한 상태였다. 거의 내 생각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도 청소년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또 내가 느낀 게 있었다. 친구들에 대해서였다.

첫 번째로 친구들에게 느낀 것은 '대단함'이었다. 이유는 사회자인 난 쓰여 있는 걸 조금 고쳐 프린트했지만,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스스로 다 써서 말한 것이었다. 원래 그렇지만 나 같으면 못 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단해~ 친구들!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느낀 것은 '자랑스러움'이었다.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떨리지만 침착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부담감'이었다. 이유는 '사회자는 틀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었다.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기도 하였다.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느꼈다. 그만큼 회의도 잘 마무리했다. 줌에서 나오는 순간! 친구들이 안도하는 숨소리를 냈다. 그러곤 내 자리로 와 의사봉을 쳤다. 마이크도 언제 뺏어갔는지 친구들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 아직 13살이었다. 순진한 친구들! 사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쉬움'이었다. 사회 시간에 국회에 대해서 봤는데 원래 그곳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못한 게 아쉽고 너무 서운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본 회의장에 꼭 가보고 싶다. (얼른 상황이 괜찮아지게 모두 기도하기!) 또 우리 반 친구들 수고 정말 많이 했다. 주장을 쓰고 고치고 연습하며 거기에서 근거까지 만들어야 해서 긴 시간이 걸렸을 거다. 하지만 긴 시간과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회의를 큰 실수 없이 잘 마친 것 같다. 지금까지 한 6학년 활동 중 가장 크게 크게 내 머릿속 한 곳에서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될 것 같았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다시 한번 더 하면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또 한다면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이렇게 또 추억 하나를 더 쌓았다. 뿌듯하고 시원했다.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일이 많이 남았다. 그 일 중 회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다. 그때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져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이춘희 시장님! 앞으로도 더 좋은 세종시로 이끌어 가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정재형(으뜸초등학교)

처음에는 '의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어도 뭘지는 잘 몰라서 계획표를 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다. 나는 다가올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셨을 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많은 것 중 오직 일부만 선택해서 하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에 맡고 싶었다. 어쨌든 역할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나는 최대한 영향력이 크고 말을 오래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르고 싶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보였다. '2분'. 내가 생각하기에 2분은 충분히 긴 시간이기에 2분 자유발언을 선택했다. 그런데 막상 말할 것을 쓸 시간이 오니 머리가 캄캄해졌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자유'로운 것이다. '만약에 이상한 주제를 써서 친구들이 눈총을 쏘면 어떡하지?' 나는 갑자기 걱정이 됐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주제를 잡고 나니 쉬웠다. 그렇게 나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내 차례를 기다렸다. 막상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몇몇 실수가 있어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전체적으로 잘하긴 했다. '2분'인데 막상 30초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음 모의의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2분 자유발언을 하기 싫었다. 선생님께서 2분 자유발언을 부탁하셔서 약간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겠는가. 나는 모의의회를 할 때 찬성/반대 대표자가 재미있어 보였다. 나는 토론을 좋아하고 좋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토론 주제를 듣고 반대해서 반대 대표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힘없이 학습지를 작성했고 말하는 시간의 제안도 없어서 쉽고 생각했다. 내 예상대로 실제로 쉬웠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지 않아서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는 실수 없이 훨씬 더 잘했다. 나는 내 근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찬성/반대 투표에서도 이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 달랐다. 이기기능커녕 참패를 했다. 물론 나는 감정적으로 가지 않았고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승패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어쨌든 나의 근거는 충분히 좋았고 실수도 하지 않았으므로 만족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먼저 의회가 어떤 것이고 진행 절차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정치인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 공부에 큰 도움을 줬고 정치와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선생님, 친구들, 의회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긴장을 안 하는 법과 압박을 받아내는 법도 배웠다. 준비, 본의회, 마무리 과정까지 재미있었다. 가능하면 다음에는 재판을 해 보고 싶다. 또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원문의 느낌과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문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하고 나서

왕수빈(나래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지난 1학기 때 의회에 관한 것을 배운 적이 있지만 시의회에 관한 것은 자세히 몰랐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종시의회를 검색해 보니 세종시에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한 의회 교실에서는 맨 첫 번째로 의회 홍보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는 것, 세종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상병헌 의원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버스 간격이 너무 긴 것에 관한 질문이었다. 상병헌 의원님은 버스간격이 15분이라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질문들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다섯 번째 질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다섯 번째 질문 시간이 되었고 내가 한 질문은 “의원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의원님께서 “아름2중 설립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완료한 것”을 꼽으셨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잘 답해주셔서 감사했다.

그다음 의회 관련 퀴즈를 풀었는데 의회 관련 퀴즈는 의회 홍보 영상을 잘 봐 둔 덕에 별로 어렵지는 않아 지방의원의 임기 문제가 나왔을 때 4년이라고 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퀴즈가 적어 친구들이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 회장이 아름답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2분 말하기를 했다. 회장이 말한 문제점은 첫 번째 고학년을 위한 놀거리 부족과 두 번째 쓰레기 문제였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찬반 표결을 하니 반 아이들 대부분 찬성표였다.

나도 찬성표였는데 친구들도 나와 같이 놀 거리 부족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의회가 내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의회는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청소년 의회 교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시의회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의회는 열려 있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준 청소년 의회 교실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김민유(아름초등학교)

이번 청소년 의회 교실을 통해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상병헌 의원님의 사무실, 하는 일을 알아서 정말 좋았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모든 학생들이 퀴즈에 참여하지 못해 상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아름중 제2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또 의원님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발표할 때 상병헌 의원님께서 의원이 된 이유, 힘든 점 등을 설명해주셔서 의원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름동에 있는 건물들을 잘 관리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살기 좋은 곳이네'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체험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청소년 의회 교실을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여러 이유로 청소년 의회 교실이 참 재미있었고 몰랐던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경험인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해서 세종시 친구들이 몰랐던 지식과 학교에 대한 지식을 더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을 세종시에서 지원을 자주 해주신다면 세종시에 사는 아이들이 세종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온라인보단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하면 더 실감이 나고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 뒤로 의회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의회에 대한 것을 더 찾아보게 되고 이번에 상병헌 의원님을 네이버에 찾아서 보았는데 우리가 의회 교실을 한 기사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우리가 나와서 신기했다.

이제 의회를 잘 아니간 동생과 가족들에게도 의회에 대해 잘 알려주고 퀴즈도 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또 다음에 의회에 대한 것을 온라인 말고 직접 보고 해서 더 실감 나게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으니 코로나19가 좀 나아지면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커서 의회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지원해서 학생들이 몰랐던 지식을 더 알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 끝나서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 꼭 한 번 더 참여해서 더 열심히 의회를 공부하고 싶다. 이번 경험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다. 의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뿌듯했다

※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원문의 느낌과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문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서울일보

세종시의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총공 도시재생 사업-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탐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총공역 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총공 역원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인 것이다.

▲ 21.11.3 지역 13면 [서울일보]

충청일보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착착'

인사권 독립 조제·규칙안 등 필요 조치법규 정비 '순조'

세종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을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조제 조항에 대해 의원 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에는 국외의 의정연수, 친환경 정책 탐방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인민회 '지방자치 2.0'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에는 국외의 의정연수, 친환경 정책 탐방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인민회 '지방자치 2.0'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21.12.27 종합 03면 [충청일보]

중도일보

세종시의회 안건 80건 처리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 21.11.26 정치 04면 [대전일보]

大田日報

세종시-세종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오는 26일 의회청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 21.11.29 종합 03면 [충청일보]

충청일보

세종시의회-세종시, 인사운영 협약 체결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오는 26일 의회청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

▲ 21.11.30 지역 10면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정기준에 적합하여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로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주권 재정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극과 반곡동 복극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세종=강대욱 기자 mugil1000@ccotoday.co.kr

▲ 21.11.30 지역 10면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대한민국 시도의회장협 세종에 '새 등기'

세종시의회 주관 첫 임시회... 12개 안건 논의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활동의 화두가 '새 등기'를 들고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활동의 화두가 '새 등기'를 들고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활동의 화두가 '새 등기'를 들고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 21.11.27 종합 03면 [충청신문]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정기준에 적합하여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로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주권 재정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극과 반곡동 복극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세종=강대욱 기자 mugil1000@ccotoday.co.kr

▲ 21.11.30 지역 10면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정기준에 적합하여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로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주권 재정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극과 반곡동 복극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세종=강대욱 기자 mugil1000@ccotoday.co.kr

▲ 21.11.30 지역 10면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정기준에 적합하여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로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주권 재정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극과 반곡동 복극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세종=강대욱 기자 mugil1000@ccotoday.co.kr

▲ 21.11.30 지역 10면 [충청투데이]

제일 미운(?) 아들

“부르르르...”

퇴근길, 가방 정리를 하는데 책상 위의 휴대폰이 유난히 요란하게 몸을 떨었다. 연기면 시골마을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어머니였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신 고향의 부모님...

바빠진 가을녘, 시골의 어른들이 허둥지둥 일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괜한 조급함이 앞서 저 많은 농사일을 어찌 다 감당할까 걱정만 하다가 돌아온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으니..

그렇게 매일 바쁘신 어머니가 겨울 반찬거리를 택배로 보냈으니 도착하는 즉시 냉장고에 넣으라고 전화를 하신게다. 자식들에게는 주어도 주어도 무엇이 서운한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 다섯 개의 택배 박스를 싸셨다 했다. 자식이 5남매이니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도 빠짐 없이 보내시기 위해서다.

똑같은 상자 다섯 개에 마당가에서 탄 감도 넣고, 아주 달고 단 배도 넣고, 할아버지가 심은 밤나무산의 토종밤 두 봉지, 고추가루 두 봉지, 참기름 1병, 은행도 한봉지씩 나누어 담으셨단다.

“아참, 그리고... 다 보내고 봉계 고추가루 봉다리가 하나 빠졌더라. 혹시 다섯중에 누구 박스에 그게 빠졌는지 알수가 움써...”

5남매에게 5개의 택배 박스를 싸서 보내고 나니 고추가루 봉지 하나가 남아 있더라고 했다. 다섯 개의 상자 가운데 어느 상자인가 빠졌는데, 그 상자가 어느 자식에게로 갈까 아버지 어머니도 궁금하신 모양이다.

전화 통화를 하던 내가 “아마 그 상자는 제일 효도 안하고 미운 아들 며느리한테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며 웃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한 다음날 저녁 퇴근해 보니 택배가 왔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이게 웬일?

내 입으로 “미운 아들 며느리한테 갈거예요”라고 한 고추 봉지가 빠진 박스가 우리에게 온게 아닌가.

우리 부부는 한참을 웃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자 “그러, 막내 니덜이 에미한테 젤루다가 못하는갑다”라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에 “네, 어머니, 더 잘하는 며느리 될게요”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아내를 보고 또 한번 크게 웃었다.

택배 박스 하나 덕분에 온가족이 며칠동안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세종의 고향에 사시는 어르신들 부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김석원_세종시 달빛로 211



2022년 1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3 March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74회 임시회(16일간)

- 시장·교육행정 질문·답변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회기운영 ○ 본회의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2. 6. 1. 지방선거에 따라 하반기 회기일정은 2022. 7월 중 정함(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종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신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담당자 박천국)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입법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